



THE GOSPEL NEWS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2년 11월 1일 (화) 제 821호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설교

그림에도 불구하고 달린다

<고전9:24~27,이사야40:31>

고 성 목사 (기후교회)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질 때마다 어린시절 주일학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즐겨보던 어린이 마라톤 TV프로 「おはよう!サンデー(日テレ、子どもマラソン)」의 주제곡 「Titles」가 귓가에 맴돈다. 이 곡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중국 선교사였던 스코틀랜드인 에릭리델의 전기를 그린 영화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주제곡이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요 근래의 일입니다.

탁월한 재능으로 “하늘을 나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릭리델은 1924년 제8회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100미터 달리기 영국 국가대표로 선출되었지만 경기를 위해서 파리로 출발하던 당일 날에 한 기자로부터 예선 경기가 일요일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신앙심 깊었던 에릭리델은 주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기에 선수단장에게 다른 날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으나 일정변경은 불가능했고 도리어 올림픽 위원이었던 영국 황태자와 주요 인사로부터 조국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기에 참석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우선 했기 때문에 주일날에 있을 예선경기를 단번에 거절했고 금메달 유망주였던 만큼 온 국민의 기대가 크고 국가의 명예를 건 경기였기에 이 일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달린다는 것은 애초에 국가나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간증하기 위한 전도의 수단이었습니다. 주종목인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메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지만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미터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릭리델의 이야기는 주일 성수에 관한 예화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으며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 일본군에 억류되어 수용소에 있을 때 그를 괴롭혔던 일본군을 끝까지 사랑한 일화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설교 예화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하게 된 이유를 생각 해본다면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앙을 가진 에릭리델의 믿음이 그 시대 구미사회의 크리스천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상을 받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개인적 신념을 통찰하기 위하여 역경을 들고 일어난 한 사람의 영웅”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사회와는 다른 문화권의 외국영화로서 흥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화의 주제곡 「Titles」가 일본의 많은 스포츠 경기 때마다 지금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신앙심보다 집단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일본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주일성수를 위하여 대회를 기권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보다는 국가의 명예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함께 특이한 신념 때문에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경기를 포기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본 사회의 현실 가운데 소수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고령화와 교인 수의 감소가 현저한 이 때에 신앙의 계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가 소중한 것임을 알고 주일 성수에 대한 귀중함을 후대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사회 구조상 주말에도 근무를 하거나 공적인 행사가 당연 시하게 주일에 잡히는 등의 이유로 에릭리델과 같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더욱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교 부서활동이나 주일날 실시되는 학교행사 등으로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다수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일상처럼 여겨지는 주일성수의 신앙개념이 천황제(天皇制; 공동체 중심사회)를 기반으로 삼는 일본에서는 비일상(非日常)으로 여겨지며 “보이지 않는 느슨한 박해(종교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회)”가 일어나곤 합니다. “집단에서 벗어나면 곧 죽음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릭리델의 일화는 “주일 성수에 대한 행위” 보다는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임을 표명하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피치못한 사정 가운데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세상의 기류자이자 (빌립보서3:20)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써 (이사야40:31)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 향한 위로인 것입니다.

에릭리델은 말씀가운데 (고린도전서 9:23-27) 올림픽 경기에 임할 때도 고난과 고통이 수반 되었던 중국 선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혼계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행동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묻어나와 지금까지도 신자인 우리에게와 비신자인 일본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박해와 신앙생활이 비일상(非日常)으로 여겨지는 이 땅에서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 반이 지나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가운데 예배의 모습도 대면과 온라인을 교차하는 예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비일상(非日常)이라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는 일상이 되고 일상과 비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면직장으로 사면 판결문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는 성서,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 규칙, 계규 재판 규정에 의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중한 심의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청원인 :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임시당회장 구자우
대상자 : 이수부, 무라카미 하루키, 유대근, 이경준, 오대석

주 문

대상자 전원에 대한 명직의 징벌은 사면한다.

2022년11월3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

위원장 양영우

위 원 장경태, 박영자, 김성효, 이대중, 배양일, 임영제

제2회 상임위원회 개최 캐나다재일선교 100주년기념준비위 조직

제56회 총회기 제2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2022년10월10일, KCC (大阪) 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상임위원24명 중에 21명, 특별위원장 2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및 현의안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되어진 주요한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동경교회가 요청한 <면직장로 사면(해벌)청원>을 받고 치리위원회를 조직하다.
양영우목사(위원장), 장경태목사(서기), 박영자목사, 김성효목사, 이대중장로, 배양일장로, 임영제장로.
- (2) 관서지방회의 지방회 규칙 변경의 건을 승인하고, 제57회 정기총회에 제출하기로.
- (3) 20년 이상 활동이 없었던 <KCCJ사회복지연맹>의 해산을 승인하고 잔금 약 100万円을 <麦仁道基金>의 약76万円과 합병하여 <백인도기금>으로 하여 계속적인 캐나다장로교회와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하기로.
- (4) 캐나다장로교회가 재일 선교를 시작하여 2027년에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제57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 (5) 제57회 정기총회는 2023년10월8일(8주일)~10일, 동경교회에서 개최하기로.

무코가와에서 연수회 개최 다채한 프로그램, 70명이 모여 큰 은혜

서부여성회 연수회를 10월 18일(화) 武庫川교회당에서 가졌다. 예년에는 가을에 1박 수양회를 기획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만나질 연수회가 됐다.

1부는 윤풍자 부회장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고, 전국여성회 총무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로부터 ‘재산을 맡긴 주인’ (마태 25:14-19)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다. 2부는 서영순 선교사회국장의 사회로 외부 강사로는 사카이교회 서성경 집사를 맞이하여 찬양과 간증이 있었다. 피아노 연주와 함께 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주셨다는 서성경 집사의 간증을 듣고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3부는 기도의 일환으로 양율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중보 기도 카드’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것을 다른 참가자들이 받아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1년간 이어져가는 첫 시도였다. 서부지방회는 또 13개 교회 2개 전도소 가운데 목사가 없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각 교회와 전도소의 신도와 임시 당회장으로 부터도 ‘중보 기도 카드’로 미리 기도 제목을 받았다. 1년 후에 그 기도 응답들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고 : 최미혜자, 황영옥)



KCCJ 西宮教会 牧師招聘

教会の未来のために共に働いで下さる方
連絡先 : shukoshinozaki@gmail.com

臨時堂会長 尹鐘憲牧師

川崎教会

신축회당 헌당식 거행 1947년 개척 이래 3번째의 헌당 건축

2022년10월9일, 주일 오후에 가와사키교회에서는 신축교회당 헌당식이 거행되어 기쁨을 나누었다.

당회장 이상경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관동지방회장 이명충목사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 (왕상8 : 41~43)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가와사키교회는 1947년에 동경교회가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와사키에 전도소를 개설했다. 민단사무실 등에서 집회를 하다가 1951년에 지금 소재지에 128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1952년에 첫 교회당을 건축하여 헌당하였다.

1969년에는 교회 병설 사쿠라모토 보육원이 개원하게 됨과 함께 두 번째 교회당을 건축하여 1974년에 헌당하였고 금번 교회당은 세 번째 신축 교회당이다.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허임회장으로 취임식 거행 집사안수식, 권사취임식, 권사은퇴식도



2022년10월9일 주일 오후에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허임회장으로 취임식 및 집사안수식, 권사취임식, 권사은퇴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구자우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니시아라이교회 김홍소목사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고전15 : 10)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임직식에는 임직자에 대한 구자우목사의 서약과 기도, 선포로 이어져, 허임회장으로 시무장로로, 방철희, 서건일, 이효근, 3명이 안수집사로, 최금순, 김애리, 이정선, 한금주, 4명이 권사가 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권사로 교회를 섬겨왔던 유향희 권사의 은퇴를 선언하였다.

금번 시무장로로 취임한 허임회장은 196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16년에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로 이적하여 섬겨왔다.

船橋教会

徳丸和博, 池永浩 장로 장립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예배도



丸徳和博長老

2022년10월16일 주일 오후, 후나바시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도쿠마루 카즈히로, 지영호 장로 장립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예배는 당회장 장경태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구자우목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일꾼> (행17 : 10-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장로 장립식은 관동지방회장 이명충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안수기도, 선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池永浩長老

금번에 후나바시교회의 장로로 장립을 받은 도쿠마루 카즈히로 장로는 1970년 일본 쿠마모토에서 출생하여 2009년부터 후나바시교회에 출석하여 집사로서 섬겨왔다. 지영호 장로는 1975년 중국에서 출생하여 2014년부터 후나바시교회에 출석하여 집사 및 안수집사로 섬겨왔다.

<救済基金委員会からの報告>

表 1. 救済基金 (2021年9月~2022年年8月) 会計報告

収入の部 単位: 円		支出の部 単位: 円	
項目	金額	項目	金額
		救済基金の支給(10名)	2,340,000
		支払い手数料	7,555
小計 ①	0	小計 ②	2,347,555
前年度繰越金	68,472,628	次年度繰越金	66,125,073
総合計	68,472,628	総合計	68,472,628

貸借対照表 2022年8月31日現在

資産の部		負債の部	
科目	金額	科目	金額
【現預金】	54,865,318		
ゆうちょ銀行 普通預金	14,384,880		
SBJ銀行 定期預金	40,480,438		
【貸付金】	4,759,755		
総幹事住宅 建築資金	4,759,755	負債合計	0
【立替金】	6,500,000		
沖縄教会	6,500,000	純資産の部	
		【繰越利益剰余金】	
		前期末残高	68,472,628
		当期純損失(①-②)	-2,347,555
		当期末残高	66,125,073
		純資産合計	66,125,073
資産合計	66,125,073	負債・純資産合計	66,125,073

募金の振込先 ゆうちょ銀行
 記号 10180 口座番号 00569901
 名称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救済基金)

2022/10/10 救済基金員会委員長 金秀生

表 2. 対象者数と救済基金が枯渇する年数試算

年金基金の残額	66,125,073	基金枯渇年数	
支援額/月	対象者数	支出/年	
30,000	10	3,600,000	18
	15	5,400,000	12
	20	7,200,000	9

【対象者】 担任牧師及び、総会機関(KCC、総会事務所、RAIK全国教会女性連合会)において経歴期間合計10年以上あり退職された教役者とその遺族配偶者の方で、年齢(70歳以上)や収入(156万円以下配偶者含)条件があります。該当する本人または、その知人がおられましたら、各地方会の任職員、救済基金委員をお訊ね下さい。毎年申請制で総会期決算の8月中の申請と各地方会任職員会の承認が必要です。

【申請方法】 毎年の申請制で、収入条件には市区町村が発行する昨年分の所得証明書が必要です。各地方会の任職員会で毎年8月までに対象者の認定を行った後、救済基金委員会で給付の受け付けを行います。

【基金について】 旧年金基金の解散、清算後の残金を活用して、隠退後の教役者と遺族母任の生活支援を目的に設定(一律3万円/月)されました。基金の会計状況は福音新聞で年に一度お知らせします。

【募金について】 現状では収入がないために、約18年以内に基金は枯渇します(表2)。今後、受給者の増加と共に基金枯渇年数は短くなります。これから基金設立の主旨に賛同される個人や教会から献金を募り、基金永続化の活動を救済基金委員会で取組みます。全国信徒の皆様のご理解とご支援、よろしくお祈りします。

宣教協約締結25周年・関東大震災100周年

KCCJ & CCJ
 在日大韓基督教会 & 日本キリスト教会

2022.11.17
 宣教協力委員会主催 記念集会
 記念聖餐礼拝 午後1時 / 講演会 午後2時~3時半
 於 在日大韓基督教会名古屋教会
 (名古屋市中村区名駅2-39-11)
 講演主題 「歴史の隠蔽と忘却に抗い—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100周年を教会はいかに迎えるか—」
 特別講師 金性済牧師(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総幹事)
 参加無料(自由献金「関東大震災100年記念事業のため」)
 オンライン(ZOOM)参加可→ <https://zoom.us/j/93110290692>
 ミーティングID: 931 1029 0692
 バスコード: 889497



●KCCJ 2022 年 教役者・長老修養会 (zoom による)●
 生きづらさをかかえつつ、新しいつながりを求める
 2022.11.23 (水・休) 午後 1 時 ~ 3 時 45 分 (参加費無料)



「希望ってなんですか」と真剣に問うてくる青年がいます。教会にかかわる私たちも、日々、生きづらさを感じながら、忙しさにまけてやりすご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ないでしょうか。貧困、格差、ほんとうは理由がはっきりしない忙しさ...。そのような日常でかかえる不安や苦しさを、教会は十分にすくえているだろうか。日頃、家庭でも、教会でも「声」にならないことの多い、それぞれの思いを持ち寄って話し合ってみませんか。私たちは在日一世が生き抜いた絶対的な貧困の時代とは明らかに違う時代を生きていますが、誰もが人生の旅を旅する「旅人」として、経済的な貧困ばかりでなく、魂や心の貧困を経験しながら、わきでくる切実な折りをもっていることと思います。私たちの歴史に通底する切実な折りをかえりみながら、どのような人びとの連なりをつむいでいけるのか、ともに考えてみませんか。

梁陽日氏(大阪教会長老): 信徒委員長、同志社大学講師。精神・知的・発達障がいを対象にしたグループセラピーをはじめ、相談支援や心理療法と併せて加害者更生に専門家として取り組む。信徒委員長として全協の立て直しに奔走する。青年や信徒がおかれている「生きにくさ」の現状をみつめ、かけがえのない「いのち」をみつめるワークショップを行います。

金歌呉氏(横須賀教会執事): 歴史学研究者。青年会全国協議会2010年度代表委員。近著、『積み重なる差別と貧困』(法政大学出版局、2022年)が注目されている。全協の活動、教会生活、子育てなどの経験や、過去と現代の貧困のあり方を見つめることを通していまだのような共同体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お話しいただきます。

プログラム *修養会はzoomで行われます。所属教会、牧師・伝道師/長老/その他の別を記入して lee91sd@gmail.com に送付して下さい。zoomのIDなどを折返しお知らせします。

1. 開会の祈り 開会のあいさつ/目的と流れの説明
2. 「生きづらさ」を見つめのりこえるためのワークショップ(梁陽日氏)
3. 小グループによるわかちあい
4. 発題「貧困の時代につながりを求める」(金歌呉氏)
5. 質疑応答・ふりかえり
6. 閉会の祈り

●問合せ: 李相徳牧師(三次教会)
 ●申込み: 以下のメールに所属教会、牧師・伝道師/長老/その他の別を記入してお申込み下さい。 lee91sd@gmail.com

主催: 在日大韓基督教会教育委員会 協力: 信徒委員会

<제11회 WCC카를스루에 총회 참관기>(2)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총회장소 출입구 부근에는 작은 천막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독일어로 <브룬넨> (우물이라는 뜻)이라 불리며, 여러 교회와 관련 단체들이 홍보 활동을 위한 부스를 내고 있었다. 브룬넨은 이름이 보여주듯 에큐메니컬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지난 부산총회에서는 <마당>이라고 불렸다. 부산에서는 KCCJ 여성회 부스를 마련해 제일동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상황을 알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 KCCJ 전용 부스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참가한 NCKK(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부스를 낸 사실을 알고 급히 협조를 요청하자 흔쾌히 KCCJ와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책자를 둘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NCKK는 부스 안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서명운동 <조선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을 주장하였다. 평화선언의 내용은 다음의 4 항목이다. ①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②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③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④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하자.

한반도에 뿌리를 둔 우리 KCCJ도 같은 소원을 가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명운동에 기꺼이 협조했다. 총회 기간 중 많은 참가자와 독일 시민들이 NCKK 부스를 찾아 한반도 분단 현황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반갑고 놀라운 일이었다 (이번 총회 기간에 1,000건이 넘는 서명을 모았다). 부스에서는 세계각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과 현지의 시민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KCCJ 참가자로서 한반도 분단의 문맥 속에 재일 코리안과 KCCJ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고, 그 흐름 속에서 KCCJ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었다.

브룬넨 부스에서 만난 많은 참가자들 가운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경험한 독일 참가자들의 목소리였다. 한 독일 목사는 당시 아직 초등학생이었지만 동서독이 하나가 된다는 뉴스를 봤을 때의 충격과 기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독일 참석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을 가능하게 한 중대한 요인으로 ‘교회의 기도와 행동’이 있었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의 말은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KCCJ가 얼마나 진지하게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행동해 왔는지 그 정곡을 찌르는 물음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등을 밀어주는 격려가 되었다.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를 위한 기도와 협력의 요청은 총회 기간 중 NCKK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의원들(delegates)이 주제별로 23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대화하는 에큐메니컬 좌담회(Ecumenical Conversations) 중에는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컬 소명”(Ecumenical Call to Just Peace)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 좌담회에서 NCKK총무는 2013년 부산총회 이후의 한반도상황을 전하고, 한반도라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7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또한 NCKK는 브룬넨 워크숍을 개최하여, 캐나다 연합교회의 패티 탈봇(Patricia Talbot)이 사회를 맡았고, 이기호(Yi Kiho) 한신대학교수의 기조발제 “전쟁 또는 평화, 한국의 전환

점 : 휴전으로부터의 긴 여정”이 있었다. 이 발제에서는 휴전에서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한반도종전선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시민사회와 교회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의 중요성, 더 나아가 자국제일주의와 안전보장을 넘어서 전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이 호소되었다.

NCKK 이외의 활동으로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PROK)가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기도회”를 열었다. PROK 총회는 동서독 분단의 시기에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통일을 향한 희망을 키운 것을 본받아 2014년부터 월요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을 이룬 독일 땅에서 열린 평화통일기도회는 제269회가 되었다. 이 기도회에는 아그네스 아뮌 WCC 중앙위원회 의장도 출석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WCC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도회 가운데 진행된 성만찬에서는 네 조각으로 나뉜 떡에 각각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이북 땅의 동포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의 국민드르”, “신음하는 생태계”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기도회 마지막에는 출석자 전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평화를 소원하는 마음을 모았다.

총회 기간 중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한반도종전과 평화실현”을 위한 호소는, 하나의 모양을 남기게 되었다. WCC 공공문제위원회(Public Issue Committee)는 공문서로서 “한반도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채택하였다. 주목할 내용은 WCC 가입교단과 파트너 교회가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 <한반도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의록이 채택됨으로서 세계교회와 한반도, 그리고 한반에도 뿌리를 둔 여러 나라의 교회와의 연대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의 전문(영문)은 다음의 웹주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

(다음 호에 계속)

(보고 : WCC 총회 참가자 일동)

